

### 민생치안 고객 만족도 조사해보니 ...

# 광주경찰 '울고' 전남경찰 '웃고'

#### 광주, 전국 16개 경찰청 중 13위 ... 전남은 1위

광주 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112 신고처리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분야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남 경찰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꼽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 신고나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경찰과 접촉했던 국민(7200명)을 대상으로 '2013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방경찰청의 치안만족도가 전국 16개 경찰청 중 13위로 그쳤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과 접촉했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전화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광주경찰청은 민원, 112 신고처리, 교통사고 조사, 수사·형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와 77.9점(13위)을 받아 서울(16위)·인천(15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광주 경찰에 대한 치안 만족도는 전국 평균(79.4점)보다 낮았다.

분야별로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느낀 만족도(73.6점)가 전국 16개 경찰청 중 꼴찌를 기록, 응대태도·서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점수  
(1)만은 순위, 전국 16개 경찰청)

광주경찰	전남경찰
77.9(13)	83.3(1)
85.0(15)	91.9(3)
73.6(16)	112신고처리 80.1(6)
85.3(3)	교통사고 조사 85.8(2)
67.6(12)	수사·형사 75.2(2)

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원 처리 분야도 15위에 그쳤고 업무 중요도가 높은 수사·형사 분야 만족도도 12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광주 경찰이 그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대악' 홍보에만 치우칠 게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치안 행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경찰은 그나마 교통 사고 처리 분야 만족도가 85.3점을 받아 전국 경찰청 중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전남 경찰은 전국 16개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치안 만족도(83.3점)를 받아 광주청과 대조를 이뤘다. 전남청의 경우 수사·형사 분야(2위·75.2점), 교통사고 조사(2위·85.8점), 민원 처리(3위·91.9점), 112 신고 처리(6위·80.1점) 등으로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모텔서 성폭행 미수 30대 검거

### 광산경찰 조사

광주광산경찰은 24일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3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여·25)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8개월 전 스타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남 A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정씨에 대

해 중간간 미수 혐의 외에 최근 개정된 형법의 유사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외키로 했다.

지난 19일 개정된 형법에는 성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구강 등을 이용해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장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유사강간 혐의는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인정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식중독 꼼짜마” 광주시 북구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높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선 가운데 24일 위생과 직원들이 중흥어린이집에서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술 마시고 소란·상인 폭행 4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은 24일 술을 마시고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며 상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41)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62)이 술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입간판을 던져 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에도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신씨는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주인에게 “징역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산구 우산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50대 주민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주민을 폭행한 진모(3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학교, 어이없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와 서로 다투다 의식불명 상태(광주일보 5월 14일자 6면)에 빠진 학생이 지난 20일 끝내 숨졌다.

학교 측은 학생이 숨진 당일, 숨진 학생 부모를 비롯해 학부모들에게 'XX중 피해학생, 오늘 사망'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학교 측이 보낸 메시지와

학교 측이 피해 학생이 숨진 당일, 피해 부모에게까지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 카카오톡 등 SNS 상에는 학교 측이 보낸 '아빠한테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 천사가 된 날, 사후 처리 없이 유포, 뒷통수 친 현 교육인들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라는 글들이 빠르게 퍼날라지고 있다.

유족들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발송해도 늦지 않은데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학교 측이 학생 생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 가족들도 “가해 학생을 용서했다. 합의했다는 말이 있는데 합의 같은 건 필요 없다. 자식을 잃은 마당에 합의금으로 몇 억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나”고 말했다. 또 “가해학생도 불쌍하지만 의아들이 숨진 상황에서 무슨 합의, 용서를 꺼내느냐”고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SNS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비난글이 급속히 확산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학교서 다투다 의식불명 학생 숨지자 학생·학부모에 ‘오늘사망’ 문자 대량 발송 ‘해도 너무해’ 비난 잇따라

함께 학교 측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하는 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중학교 교실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서로 싸우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14)군이 20일 오후 4시 끝내 숨졌다.

이후 학교 측은 피해 학부모를 비롯해 상당수 학부모들에게 'XX중, 피해 학생 오늘 사망'이라는 제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는 “유족들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니, 가해자에 대한 악성글을 올리지 말고 조용히 지도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족들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발송해도 늦지 않은데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학교 측이 학생 생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 가족들도 “가해 학생을 용서했다. 합의했다는 말이 있는데 합의 같은 건 필요 없다. 자식을 잃은 마당에 합의금으로 몇 억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나”고 말했다. 또 “가해학생도 불쌍하지만 의아들이 숨진 상황에서 무슨 합의, 용서를 꺼내느냐”고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SNS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비난글이 급속히 확산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요양급여 허위청구하고 공사 뒤통 받고

### 전남경찰, 4명 구속·입건

노인 요양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자신의 배 배리기에 급급한 요양원장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장기요양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로 무안 B요양원 원장 이모(55·여)씨와 P요양원 원장 최모(6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업자로부터 뒤통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영암 S요양원 원장 김모(72·여)씨 등 2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4억4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나원침 (8845) 김종두



### 나주 음주 뺑소니 40대 검거

나주경찰은 24일 음주운전 중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로차량)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밤 8시30분께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박모(여·8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son@

### 새벽 길 성추행범 점 때문에 덜미

○...밤에 홀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통수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몸의 점 때문에 경찰에 덜미.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5)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H아파트 인근 차 길에서 A(여·23)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지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범인 오른쪽 팔꿈치에 큰 점이 있는 사실을 확인, 주변 수색을 벌이다 광주공원 인근에서 반소매 셔츠를 입고 배회하던 장씨를 검거.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변경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hello tv 가입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 전자 LG LED TV 일반 가전대장 판매가 980,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 전자 LG LED TV 모니터 일반 가전대장 판매가 3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대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대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